

# 전동킥보드 화재! 예방이 최선입니다

-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및 화재사고 예방 홍보만화 배포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, 이하 '국표원')과 한국소비자원(원장 직무대행 정동영, 이하 '소비자원')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\*하고 있어,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(붙임1 참조)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.

\* ('19년) 10건 → ('20년) 39건 → ('21년) 39건 → ('22년) 115건 → ('23.上) 35건 (소방청 국가화재정보)

특히,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\*,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, 다양한 제조사(24개사)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.

\*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(87.8%),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(4.7%),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(7.5%)으로 분석

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(4개사 5개 모델)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,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,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하였으며,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(14개사 15개 모델)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"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,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"을 강조하면서, "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(www.safetykorea.kr 또는 1670-4920)로 신고해줄 것"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제품안전정책국	책임자	과 장	박해범 (043-870-5430)
	제품안전정보과	담당자	사무관	박혜영 (043-870-5434)
담당 부서	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	책임자	주무관	한종수 (043-870-5433)
		담당자	팀 장	김인숙 (043-880-5421)
			과 장	김민지 (043-880-5422)

# 전동킥보드 화재! 예방이 최선입니다!



\* 소방청의 「전동킥보드 화재 예방법」을 참고하여 제작한 홍보자료입니다.

**□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KC인증 받은 제품 사용!**

-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세요.
- 충전 시 자리를 비우거나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마세요.
-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,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하지 마세요.
-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충전하세요.
-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,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하세요.
- 충전이 완료되면 코드를 분리하세요.
-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 시 운행을 자제하세요.

**□ 고장·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 점검!**

-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.
- 고정부품의 파손·훼손(금이 가거나 휘어짐 등)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-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,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
- 저속에서 브레이크·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.
-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·수리하지 말고,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.

**□ 운행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!**

- 안전모·보호대·야간등·야광띠 등의 안전용품은 사고 시 사망률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착용을 습관화하세요.
- 음주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고,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세요.
-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어폰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세요.
-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인입니다.
-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하세요.